



〈빵과 물고기의 기적〉(부분), 300-330년 경, 대리석, 성비오크리스천 갤러리, 바티칸 박물관

성화 해설

이 석관의 둘레에는 신구약 성서의 주요 장면들이 부조되어 있는데 '빵과 물고기의 기적'은 그 가운데 한 부분이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 위해 젊은이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들고 있는 빵과 물고기를 축복하고 있으며 그분 앞에는 기적을 통해 만들어진 빵들이 여러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다.

입당송 시편 68(67),6-7.36 참조

제1독서 2열왕 4,42-44

화답송 시편 145(144),10-11.15-16.17-18(◎16 참조)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

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2독서 에페 4,1-6

복음환호송 마태 8,17 참조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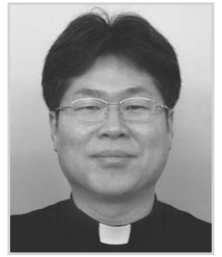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음 요한 6,1-15

영성체송 시편 103(102),2 참조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사목부

오늘 복음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풀이 많은 들판에 지쳐 있는 이들이 때를 지어 앓아 있는 모습과 그들을 산 위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마음속으로 그려보노라면 이런 성가가 떠오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쉽지 않네, 푸른 풀밭 시냇가에 쉬게 하사 나의 심신을 새롭게 하네.”

가톨릭 성가 54번입니다. 이 성가를 저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듣고 부릅니다. 왜 장례식장에서 자주 불릴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유족들에게 ‘주님께서 그의 목자시니 하늘나라에서도 아무것도 아쉽지 않도록 책임져주실 것입니다’란 의미가 위로와 용기를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를 유심히 보시고 오히려 그 걸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이 좋고, 소형차보다는 중형차가 더 멋있어 보입니다. 냉장고의 음식들도 버리는 것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으니까 또 없으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장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짐이 되어 버립니다. 인사이드룸 때마다 힘든 것이 바로 이삿짐을 싸는 것입니다. 읽지 않는 책을 정리하면서도 맞지 않는 옷을 정리하면서도 언젠가는 읽을 거야, 살을 빼면 입어야지 하며 다시 짐속으로 넣어버리는 저 자신을 보면 이삿짐이 아닌 욕심 덩어리들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많지 않아도 되고 부족해도 되며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을 바라보려는 열의만으로도 우리

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십니다 (마태6,25-34).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거나 부족한 것에서도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믿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오늘 복음의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요?

하느님의 덧셈은 이상하고도 특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90에 10을 더해 100을 만드십니다. 또 70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30을 더해 100을, 50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50을, 10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90을 보태 100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이백 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제자와 아이의 작은 음식으로도 감사를 드리신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당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군중을 피해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주일을 지내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 고독 속으로 물러가는 시간을 가져봄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요한 6,11).

기도중에 지구를 품다.



김희진 사비나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오늘은 무슨 지향으로 미사를 드릴까?’ 나는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한두 가지의 지향을 정한다. 혹시 지향이 너무 많으면 몇 개만(?) 들어주실까 봐 혼자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한두 가지에만 집중하여 기도한다. 학생 때는 물론 좋은 성적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기도제목으로 했었다. 20대 후반이 되면서 직장파 배우자에 대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영혼들을 위해 미사를 바치는 수가 늘어났다. 항상 내가 중심이 된, 나의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중심이 된 지향이었다. 하지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나에게 그 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

하루하루 인권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 우선순위는 뒤죽박죽이 되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그것을 내가 판단해서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기도하는 것으로 나만의 규정을 수정했다.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나를 그 사람의 상황에 대입하고 최대한 그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 올해 초 용산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어서 빨리 평화를 얻기를, 사형수들에게 죄를 뉘우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이(그리고 외국에 있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더 이상에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최근 대량해고의 위협에 놓인

비정규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서 빨리 정의를 되찾기를, 우리 사회가 사람이 존중받는 따뜻한 곳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러한 기도들을 모든 신자들이 한꺼번에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며 미사 때 신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 어떤 기도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세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가 가장 자주 하는 기도가 아닐까. 미스코리아나 미스유니버시아드 선발대회에서 여성들이 바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역시 ‘세계평화’ 또는 ‘World Peace’ 일 것이다. 너무 흔하게 입에 담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상들을 놓고 본다면, 그만큼 절실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은 없다. 중국에서 탄압받는 소수민족을 위해, 이란에서 시위를 하다 죽은 사람들과 가족을 위해, 아무 죄 없이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개발을 위해 무작정 쫓겨난 캄보디아 한 지역의 수만 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쉬운 일이다.

‘누가 네 이웃이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지구를 품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30

배아의 착상을 방해하는 약을 복용하는 것도 낙태에 해당된다

“피임...과 더불어 배아가 이미 형성되어 자궁벽에 착상되기 전후인 수정 이후 적용되는 기술적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한 방법이 배아의 착상을 방해할 경우에는 임신 차단 방법이고 이미 착상된 배아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절 방법이다... 임신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배아의 착상을 막을 생각으로 그러한 의약품을 요구하거나 처방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낙태를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임신 차단과 임신 중절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낙태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부도덕이다” <인간의 존엄 23항>

성관계에서 수정을 막는 것은 피임이지만, 수정된 배아의 착상을 방해(임신 차단)하거나 수정되어 착상된 배아를 제거(임신 중절)하는 경우는 낙태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착상 차단제인 응급피임약(morning-after pills)은 호르몬 작용으로 자궁벽을 떼어 놓아 배아가 자궁벽에 착상되는 것을 막습니다.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RU-486)은 착상된 배아를 낙태시키는 임신중절제입니다. 성관계 후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것을 단순히 피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는 이를 낙태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부도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에서 말하는 낙태의 개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정된 이후 모든 시기에 태아(배아)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10년 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빈민사목 10주년을 맞이하여 미사를 집전하시며 이런 강론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공회회 말씀으로나 복음 말씀에 비추어서도 교회가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난한 교회,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되어왔다고 볼 수 없고, 현재 그렇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직자들이 하는 말과 전하는 복음이 내적으로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난한 자로 사셨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기경님께서도 일찍이 이러한 모습에 대해 인정하고 계셨고 교회 안팎에서 교회의 대형화와 중산화, 사회정의에 대한 무관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구장님으로부터 빈민사목 봉천3동 선교본당으로 발령을 받고 봉천동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동안 알고 지냈던 신자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신부님 힘드실 텐데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나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고 힘없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씀에 대해 “형제님, 그곳 지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 지금 계신 곳에서 형제님의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것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주변에는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지금 신부님이 살고 있는 곳은 산동네가 없어졌잖아요. 아파트도 들어서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발전하고 그래서 산동네는 없어지고 으리으리

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재개발이 되면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들 갑자기 하늘로 솟고 땅으로 꺼졌을 리는 없었겠죠. 바로 우리 주변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 하여 사는 것이, 삶이 아니라 일로서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복지관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회 시설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로서 이루어지기에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부자들과 기득권층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소외된 이들을 만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사랑과 나눔을 말로 써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아니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을 따르는 여러 가지 길 중에 빈민사목이라는 길을 통해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서려는 저의 마음속에는 늘 그러한 주님께서 자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우선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선택하신 주님’,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신 주님’ 이 거짓된 것이 아니기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 뜻이 우리 모두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신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자신만이 의인이라는 교만함을 버리고, 죄에 대한 자괴감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을 버리고 모두와 함께 그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소식

광주대교구 부교구장, 김희중 주교 임명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난 7월10일, 광주대교구 보좌주교 김희중(히지노) 주교를 광주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했습니다. 부교구장 주교는 교구장 승계권이 있는 주교로서,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그 즉시 교구장이 됩니다. 김 대주교는 1947년 목포에서 태어나 1975년 사제수품 후 경동성당 보좌를 지낸 뒤 로마에서 유학했습니다. 이후 광주 가톨릭대학교 교수, 금호동성당 주임을 거쳐 2003년 광주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 주교품을 받고 현재 광주대교구 보좌주교로 총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 발표

주교회의 생명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지난 7월8일, '안락사로 인식되는 존엄사법 제정을 반대'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www.cbck.or.kr 참조).

1. 우리는 '존엄사'에 대한 법률 제정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존엄사'라는 그럴듯한 명칭은 안락사를 아름답게 포장한 개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존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3. 삶의 마지막 시기를 맞이한 환자가 자력으로 호흡할 수 없게 되어 인공호흡기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환자가 인공호흡기 부착을 거부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4. 환자 자신의 의사에 따른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되는 조건은 환자 자신의 생리적 기능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5. 삶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에게 있어 참된 의미의 존엄이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들이면서 편안히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병문(베드로) 신부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이병문(베드로, 65세) 신부님이 지난 7월16일에 선종하셨습니다. 이병문 신부님은 1944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73년 사제수품 후 명동·길음동·돈암동·왕십리·잠실·이태원·한강·구의동성당에서 사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교구 관리국장과 일원동성당을 거쳐 잠원동성당에서 사목중이셨습니다. 7월18일(토)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7월29일 임화길 안드레아 신부(78세) 1988년, 용인
- 7월30일 오기선 요셉 신부(83세) 1990년, 용인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8월 하계 프로그램 안내

학년	때	곳	문의
중1	8월10일(월) 9시30분	명동성당→남산N타워	010-2742-2123
중2	8월6일(목)~8일(토)	음성 꽃동네(현장체험 봉사활동)	010-9954-2123
중3	8월16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대성당	010-2577-2123
고1	8월10일(월)~12일(수)	해미→솔피(도보성지순례)	010-9961-2123
고2	8월6일(목)~8일(토)	성신교정(신학교 체험, 봉사활동)	010-9972-2123
고3	8월8일(토)~9일(일)	우이동 명상의 집(피정)	010-8803-5695
일반	8월1일(토)~2일(일)	우이동 명상의 집(피정)	010-8803-5695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잠실7동성당 관리인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남교우 / 문의: 416-7286
-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임신부 추천서(8월5일까지 접수, 접수된 서류 반환 안됨)
- 주소: (138-865)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301-7

교구청 알림

경찰사목위원회 교리교육·유치장 사목 봉사자 모집

·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교리교육	전·의경들에 대한 교리와 인성교육에 관심있는 봉사자	는 자원봉사자(세례·견진받은 55세 이하 교우)
유치장사목	유치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전달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세례·견진받은 60세 이하 교우)	

제9차 부부여정 운영자 양성교육

- 대상: 일반 부부, 본당에서 부부여정을 운영할 부부, 성직·수도자(회비: 부부 10만원)
- 때: 8월22일-9월19일 매주(토) 14시-17시(5주)
- 곳: 화곡본동성당 / www.ihome.or.kr
- 문의: 727-2070 사목국 가정사목부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 미사

- 때: 7월31일(금) 오전 10시30분
 - 곳: 명동성당 내 소성당 / 문의: 727-2414, 5
- 평화화랑 상설전**
- 때: 7월29일(수)~8월18일(화)
 - 곳: 평화화랑 제1·2전시실 / 문의: 727-2336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8. 2. 14시	평창동 수련소	011-9852-9817
로사리오성모의도미니코수녀회	8. 2. 14시	성북동 한국 본원	011-1731-7123
서울 포교성 베네딕도 수녀회	8. 2. 14시	돈암동 본원	010-6259-6364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8. 2. 10시-16시	골롬반 선교센터 2층	010-2895-6430
성 바오로 딸 수도회	8. 1. 15시	미아리 본원	011-232-1611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령 선교 수녀회	8. 2. 14시-17시	명륜동 본원	010-5730-6322
파티미의성모 프란체스코 수녀회	8. 2. 14시	수지 본원	011-9176-1212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8. 2. 14시-17시	보문동 수녀원	011-9319-1690
한국 외방 선교회	8. 2. 13시	한국 외방 선교회 본원	010-4555-7526

알림

모임

예수 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2차 피정(문의: 990-1004)
· 때: 8월10일(월)-13일(목) / 회비: 15만원

청주교구 성령봉사회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 때, 곳: 8월7일(금)-9일(일), 청주교구 성령봉사회 관(초정) / 043)213-9103, 010-4400-1344(숙식제공)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1:1 개인지도식)
· 때: 8월3일(월)-6일(목) 3박4일 / 문의: 010-6847-7222
· 곳: 메리워드 교육관(주최: 예수수도회) / 회비: 15만원

젊은이 성령목상회
· 대상: 고교생 이상 미혼 여성 / 회비: 3만원
· 때: 8월8일(토) 14시-10일(월) 15시 / 055)351-2285, 6
· 곳: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주최) 본원 / 011-758-3572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피정
· 소개피정: 8월11일(화)-12일(수) 1박2일
· 성직·수도자: 9월4일(금)-11일(금) 7박8일
· 문의: 054)973-4835, 011-542-4835 연화리 피정의 집

예수회 젊은이의 피정 "평화를 얻기위해"
· 대상: 남·녀 대학생(5만원), 35세 이하 미혼 직장인(7만원) / 719-1803(cafe, daum, net/youngRetreat)
· 때, 곳: 8월14일(금)-16일(일), 우이동 명상의 집

15-A지구 은혜의 밤 성령 기도회
· 강사: 이종남 신부(미사·말씀·안수)
· 때, 곳: 8월7일(금) 오후 7시-10시, 발산동성당
· 문의: 011-350-4929 15-A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 내용: 미사, 성체조배, 고해성사, 찬양, 나눔
· 때, 곳: 8월1일(토) 21시-5시, 동성고등학교(해화동) 백주년 기념관 / 019-201-4924, 019-470-2416
· 찬양팀(악기, 보컬) 모집중 (www.totustuus.or.kr)

대건 아프리카 선교후원회 '열린 치유 대 피정'
· 대상: 누구나(회비없음) / 강사: 김중국 신부
· 은혜의 시간: 한정옥 부회장 / 미사: 한성호 신부
· 때: 8월1일(토) 낮 12시30분-오후 5시30분
·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문의: 757-1416, 7

가정회복을 위한 기도회와 미사
· 집전: 유용덕 신부 / 011-245-0121, 016-9282-2422
· 때: 7월27일(월) 13시30분-17시(기도: 박용해)
· 곳: 말씀의 선교 수도회(주최) / 전철 2호선 아현역 2번 출구에서 05번 마을버스 종점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와 124위 시복시성을 위한 철야기도회(문의: 043-533-5710)
· 기도: 김진방 회장(미사: 이승용·류한영 신부)
· 때: 8월1일·5일(토) 21시30분-4시(22시 미사)
· 곳: 배티성지(주최) 조립식 강당(성사, 면담)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2박3일 치유피정
· 강사: 최봉도 신부(회비: 11만원)
· 계좌: 부산은행 045-01-037552-0 (재)티없으신
· 때, 곳: 8월14일(금)-16일(일) 13시(접수), 마리아 피정 센터(주최) / 문의: 011-9503-0228

성령쇄신봉사회 치유기도회 내척 치유세미나
· 고해성사, 상담, 강의, 치유기도, 안수, 미사(회비없음)
· 때, 곳: 매주(수) 10시30분-16시30분, 성령쇄신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5528-5535 버스 환승, 조원동 주민센터 앞 하차) / 867-7900(숙식제공)

7월29일(수) 5주: 우울증의 치유 / 이영숙 수녀
8월5일(수) 6주: 과거 삶의 치유 / 한상우 신부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자녀축복 철야기도회(7주간)
· 내용: 미사, 강의, 치유기도회 안수, 고해성사, 성체현시 / 문의: 867-7900(www.crks.or.kr)
· 때, 곳: 매주(금) 22시-4시30분, 동성고등학교(전철 4호선 해화역 1번 출구) / 강사: 사제, 수도자, 평신도

8월1일 자녀를위한 어머니 기도회 8월21일 자녀를위한 중재 기도회
8월14일 성모님에 자녀봉헌예절 8월28일 사랑의 영상편지 안수

교육

여성연합회 원어인 영어교실(문의: 778-7543)
· 때, 곳: (월-금) 주1회(2시간), 가톨릭회관 512호
평화심리상담소 아동 미술·놀이치료
· 내용: 불만스러워 큰소리로 화내고, 신경질, 짜증이 많아 징징대며 울고 빠지는 아동들의 문제를 해소해 주는 미술·놀이치료 / 775-4831, 2
· 접수: 수시접수(전화예약 후 상담)

예수회 2학기 영성강좌
· 주제: 나를 이끄시는 주님 / 강사: 최시영 신부
· 회비: 4만원(한학기) / 문의: 718-3896, 7 후원회
· 때: 9월-12월 첫째(수) 오후 1시30분-4시30분
· 곳: 서강대 이나시오관 강당(개인접지함)

2009년 2학기 역삼동성당 강남가톨릭문화원 가톨릭상담심리사 양성교육(문의: 070-8235-1617)
· 대상: 가톨릭상담, 종교영성심리에 관심있는 교우 및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강사: 상담심리전문가) / www.kcqa.org
· 과목: 상담심리, 종교영성심리, 가톨릭상담, 발달심리
· 때, 곳: 9월1일부터 매주(화·목) 주2회, 역삼동성당
· 회비: 70만원(한학기), 17만5천원(과목당)

에니어그램
· 강사: 유엘리사벳 / 문의: 010-8502-9256
· 곳: 마카엘성당(전철 3호선 경복궁역) / 주최: 행복을 만드는 집(http://cafe.daum.net/Erneagram)

1단계	8월8일(토)-9일(일)	토요일: 14시-18시 일요일: 10시-17시
2단계	8월22일(토)-23일(일)	
3단계	8월30일(일)	

탈리다콰센터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안내
· 쉽고 재미있는 심리학적 이해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강좌
· 문의: 742-9471, 3(문의 후 접수) / www.taly.co.kr

탈리다콰 영성강좌	매주(수) 11시	하느님의 사랑을 찾는 화양여행
생활심리 문화강좌	매주(수) 10시	인간관계를 위한 심리학 이야기
봉사자 실무강좌	매주(수) 12시	자원봉사 교육개론

살레시오 사회교육문화원 프로그램
· 문의: 844-0388(www.salesioedu.com)

부모를 위한 "3S 영성강좌"	토·보스코미움에서 찾은 살레시오 영성
자녀의 성장을 위한 "독서코칭"	자녀와 소통하는 능력강화 / 9월개강

매종 프로그램(발달상담/임상 및 건강심리센터)
· 곳: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 011-219-2059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쉽게 긴장하고 불안하여 시험, 면접, 발표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 및 성인,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신체증상이 많고 우울해지는 전 연령층,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갈등이 심한 가족
전문적인 종합심리평가	자능, 주의집중, 학습능력, 기억, 성격, 정서(우울, 불안 등) 평가, 결혼만족도, 적성 및 진로평가

이나시오 영성연구소(예수회)

이나시오 영성 연구소(예수회) 무료월회	주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때: 7월31일(금) 10시-16시(미사있음, 중식제공) 곳: 서강대 이나시오관 소성당(개인접지함) / 회비없음
유서친 신부의 특별 영성 강연회	주제: 인간존재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와 추구 때: 8월28일(금)-29일(토) 10시-16시(미사있음) 곳: 서강대 이나시오관 소성당 / 중식제공 회비: 2만원(회원), 4만원(미회원) / 717-3869

제 21기 목요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 때, 곳: 8월20일부터 매주(목) 19시40분-21시30분(총 32강좌), 서강대 K관 403호 / 705-8163 CLC 사무처

8월20일-9월17일	교회의 역사와 새로운 사명, 한국천주교회사 등
9월24일-11월12일	성서란 무엇인가, 기도와 삶 등
11월19일-29일	소공동체와 복음화, 죽음의 의미 등
3월18일-4월30일	존재의 근거문제, 성서와 계시 등
5월7일-28일	신학적 인간 이해, 이스라엘의 역사 등
6월14일-7월9일	신앙의 그리스도, 마리아론 등

강사: 김현덕·송용민·홍승도·박준양 신부 / 조광·노길명 교수외

모집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청소년 지도사 모집
· 대상: 인성교육에 관심있는 청소년 지도사
· 홈페이지(www.kkotlove.or.kr) 참조
· 문의: 043)879-0406 교육관 사무실

가톨릭대학교(서울 대신학교) 직원 모집
· 모집: 영양과(주방) 0명 / 7월31일(금)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문의: 740-9708
·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

미사

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곳: 8월1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56-3473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회 미사·위령미사
· 때: 7월30일(목) 10시(연도·찬미) 11시(미사·안수)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74-8025

천주교 서울대교구 절두산 연령회
· 지향: 선종한 사제들, 불쌍한 영혼들, 조상들, 선종한 부모와 형제 자매들 / 010-7534-1866
· 때: 7월31일(금) 12시(연도)·13시(미사)

영어로 배우는 성경공부와 영어미사
· 때, 곳: 8월2일(일) 15시-17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당일접수(www.oblates.or.kr)
· 문의: 010-2778-7145 오블라테 선교 수도회

첫토요일 신심 다락방 미사
· 집전: 이범주 신부(중식 제공) / 문의: 442-8511
· 때: 8월1일(토) 오전 11시(30분전 묵주기도)
· 곳: 암사동성당(주최) / 전철 8호선 암사역 1번 출구
· 하느님의 뜻 영성 교육: 첫째·셋째주(토) 14시

곶벚나무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시회(성모신심미사)
· 내용: 성모신심 미사, 성모마리아 신심 강좌
· 강사: 구원모 신부 / 793-2070, 010-8820-5560
· 때: 매일 첫째주(토)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곳: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구 단국대 옆)

안내

무료 가정방문 호스피스 봉사
· 대상: 6개월 이내 임종 예상 모든 환자
· 지도: 이경식 박사, 송광섭 신부
· 문의: 887-2311 삼성산 호스피스 봉사회(주최)

가정문제상담 '아름다운 가정 상담소'
· 내용: 가족 갈등, 폭력, 부부, 이혼위기, 노인, 교정치료 / 온라인 상담(www.bhc.or.kr)
· 매주(월-금) 10시-18시 / 문의: 3288-1516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개원 기념 '2009 인체병리전시회' 무료 개최(문의: 2258-1590)
· 사람의 질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
· 때, 곳: 7월27일(월)-8월21일(금), 서울성모병원 4층

한국가톨릭문화원과 함께 하는 음악여행 팝스콘서트
· 때, 곳: 8월4일(화) 20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연주: 한국가톨릭심포니 오케스트라(특별출연: 인순이)
· 문의 및 예매: 1577-3217 사무국, 1544-1555 인터파크

명동성당 8월 예비신자 교리학교
· 개강: 8월8일(토) 오후 5시

토요반	오후 5시	교육관 305호	774-1784
-----	-------	----------	----------

· 명동성당 성지미사: (월토) 오전 10시, 지하성당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전국 피서지 인근 성당 안내 1

인천 도서 지방

- 대부도**
 - 대부 본당: 032)883-7141
- 대청도**
 - 대청도 본당: 032)836-2374
-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
 - 덕적도 본당: 032)831-2806
 - 진리 공소: 032)832-2782
-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천국의 계단 촬영지)**
 - 용유 본당: 032)746-2263
 - 무의 공소: 032)752-4326
- 백령도**
 - 백령 본당: 032)836-1221
- 송도 해수욕장**
 - 옥련동 본당: 032)832-1784
 - 진리 공소: 032)832-2782
- 승봉도, 이일래 해수욕장**
 - 용현5동 본당: 032)884-3834
-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 신도 본당: 032)752-0097
 - 시도 공소: 032)752-4077
- 연평도**
 - 연평도 본당: 032)831-4176
- 영흥도 해수욕장**
 - 영흥 본당: 032)883-6100
- 용유도(무지개 풀장, 울왕리 해수욕장)**
 - 용유 본당: 032)746-2263
- 자월도**
 - 연안 본당: 032)887-4313
 - 자월 공소: 032)833-2955

강원도

- 강촌(춘천)**
 - 강촌 본당: 033)261-1004
 - 광관 공소: 033)263-3488
 - 추곡 공소: 033)263-0930
 - 후동 공소: 033)263-0353
- 경포대, 승정, 안목 해수욕장**
 - 초당 본당: 033)652-9770
 - 임당동 본당: 033)642-0700
 - 옥천동 본당: 033)647-5438
 - 솔울 본당: 033)647-4966
- 고석정, 순담 계곡**
 - 철원 본당: 033)455-9669
- 낙산, 수산포, 설악 해수욕장, 오색 약수, 소금강**
 - 양양 본당: 033)671-8922
 - 현북 공소: 033)672-8204
- 남향진, 등명, 안인, 정동진 해수욕장**
 - 노암동 본당: 033)643-8460
- 내린천**
 - 인제 본당: 033)461-0964
 - 신남 본당: 033)461-9943

- 망상, 옥계, 정동진 해수욕장, 무릉 계곡**
 - 옥계 본당: 033)534-0666
- 삼부연, 직탕 폭포**
 - 갈말 본당: 033)452-7708
 - 문혜 공소: 033)452-5846
- 삼척, 맹방, 덕산, 부남, 후진 해수욕장**
 - 성내동 본당: 033)574-2273
- 설악산, 대포항, 물치항**
 - 설악동 본당: 033)636-7624
 - 물치 공소: 033)671-1630
- 속초(가을 동화 촬영지), 송지호, 삼포, 공형진, 백도 해수욕장, 척산 온천**
 - 고동 본당: 033)633-2086
 - 동명동 본당: 033)632-3088
 - 간성 본당: 033)682-9004
 - 학야리 공소: 033)631-0194
 - 동해 본당: (033)632-6723
 - 청호동 본당: 033)633-6858

- 오대산, 용평**
 - 진부 본당: 033)335-7202
 - 봉평 공소: 011-243-4989
 - 횡계 본당: 033)336-1120
- 용화 해수욕장**
 - 사직동 본당: 033)574-6608
- 주문진, 연곡, 인구, 사천 해수욕장, 죽도, 소금강**
 - 주문진 본당: 033)662-9115
 - 삼산 공소: 033) 661-4176
- 중도(춘천)**
 - 죽림동 본당: 033)254-2631
 - 퇴계 본당: 033)243-6004

- 추암 해수욕장**
 - 북평 본당: 033)521-1784
- 치악산**
 - 소초 본당: 033)732-5912
 - 원동 본당: 033)765-3350
- 통일 전망대, 초도리, 화진포, 거진 해수욕장**
 - 거진 본당: (033)682-5484
 - 대진 공소: 016-348-1724
- 하조대, 삼팔 해수욕장**
 - 양양 본당: 033)671-8922
 - 현북 공소: 033)672-8204
 - 학성동 본당: 033)742-3636
- 호산 해수욕장**
 - 사직동 본당: 033)574-6608
 - 호산 공소: 033)572-6668

충청북도

- 배티 성지, 백곡 저수지**
 - 진천 본당: 043)534-2742
 - 백곡 공소: 043)532-5120
 - 초평 공소: 043)534-7333
 - 배티 성지: 043)533-5710

- 고수동굴, 단양팔경, 소백산**
 - 단양 본당: 043)423-4013
- 속리산**
 - 보은 본당: 043)543-5680
- 수안보 온천, 문경새재, 월악산**
 - 수안보 본당: 043)846-1351
- 연풍 성지**
 - 연풍 성지: 043)833-5064
- 옥화대**
 - 미원 본당: 043)298-0032
- 용추 폭포, 쌍곡 계곡**
 - 괴산 본당: 043)832-2221
- 충주 دم**
 - 목행동 본당: 043)853-1342
- 충주 탄금대, 중앙탑**
 - 봉방동 본당: 043)851-7300
- 화양동, 선유동 계곡**
 - 청천 본당: 043)832-8851

충청남도

- 계룡산**
 - 유성 본당: 042)823-4751
- 난지 해수욕장**
 - 대산 본당: 041)681-8802
- 대천 해수욕장**
 - 요나 성당: 041)934-7758
- 덕산 온천, 수덕사**
 - 덕산 본당: 041)337-4355
- 도고 온천**
 - 도고 본당: 041)541-6789
- 만리포, 연포 해수욕장**
 - 태안 본당: 041)674-1004
- 안면도 국립공원**
 - 안면도 본당: 041)673-1071
- 온양 온천**
 - 온양 본당: 041)548-3211

부산 도서 지방

- 광안리 해수욕장**
 - 민락 본당: 051)754-7150
 - 남천 본당: 051)623-4528
 - 광안 본당: 051)756-3351
- 금강 공원**
 - 온천 본당: 051)552-0355
- 낙동강변**
 - 구포 본당: 051)332-6370
 - 금곡 본당: 051)362-4700~1
- 다대포 해수욕장**
 - 다대 본당: 051)263-8681
 - 물운대 본당: 051)265-5531
- 범어사**
 - 금정 본당: 051)581-4008
 - 남산 본당: 051)583-6314~5
- 송도 해수욕장**
 - 송도 본당: 051)254-1601

- 용두산 공원**
 - 중앙 본당: 051)246-4284
- 울주군 석남사, 작천정**
 - 언양 본당: 052)262-5312~3
- 일광 해수욕장**
 - 기장 본당: 051)721-2273
 - 삼덕 공소: 051)721-4709
- 일산 해수욕장**
 - 방어진 본당: 052)235-0763
 - 전하 본당: 052)234-9601
- 태종대**
 - 태종대 본당: 051)404-1118
 - 화명 본당: 051)341-7770~1
 - 한국 순교자 기념관: 051)582-2920, 516-1804
-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 해운대 본당: 051)746-5881

제주도

- 김녕 해수욕장, 만장굴**
 - 조천 본당: 064)784-6173
 - 김녕 본당: 064)783-4320
 - 세화 공소: 064)782-1773
-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지**
 - 신창 본당: 064)773-1044
- 모슬포, 마라도, 송악산 지구**
 - 모슬포 본당: 064)794-2074
- 비양도, 협재, 각지, 금릉 해수욕장, 한림 공원**
 - 한림 본당: 064)796-4044
 - 애월 공소: 064)799-0026
- 비자림**
 - 성산포 본당: 064)782-0500
 - 세화 공소: 064)782-1773
-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 신양 해수욕장**
 - 성산포 본당: 064)782-0500
 - 우도 공소: 064)783-0631
- 용머루, 삼방굴사, 화순 해수욕장, 송악산**
 - 모슬포 본당: 064)794-2074
- 우도**
 - 성산포 본당: 064)782-0500
 - 우도 공소: 064)783-0631
- 차귀도, 본재 예술원**
 - 고산 본당: 064)773-2004
- 천제연 폭포, 중문 관광 단지**
 - 중문 본당: 064)738-6123
- 천지연, 정방 폭포, 범섬**
 - 서귀 북자 본당: 064)733-5523
 - 서귀포 본당: 064)762-3444
- 표선 해수욕장, 성읍 민속 마을**
 - 표선 본당: 064)787-0173
- 함덕 해수욕장**
 - 조천 본당: 064)784-6173